

윤달 희비...장의업계 호황·결혼업계 울상

영락공원 화장 문의 하루 80~100건 쇄도 “윤달엔 조상 음덕 못받는다” 6월 결혼 꺼려

3년만의 윤달을 10여 일 앞두고 관련업계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오는 24일부터 시작되는 윤달을 맞아 광주·전남에서도 조상묘 이장과 개장유골 화장 신청이 크게 늘면서 장사업계가 호황을 맞고 있는 반면 결혼업계는 윤달 결혼을 기피하는 풍습으로 인해 결혼식이 크게 줄면서 울상을 짓고 있기 때문이다.

5일 광주 영락공원사업소(이하 영락공원)에 따르면 오는 24일부터 다음달 22일 까지 이어지는 윤달을 맞아 개장 유골 화장을 문의하는 전화가 하루평균 80~100

건가량 걸려오고 있다. 평소에는 한 달에 10건도 채 안되지만 윤달을 앞두고 문의가 쇄도하면서 업무가 마비될 정도라는 것이 영락공원 측의 설명이다.

영락공원은 윤달이 시작되면 하루 평균 50~70건(일반화장 제외)의 개장유골 화장이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평소에는 하루 평균 개장유골 화장건수가 많아야 1건 정도라는 점을 감안하면 ‘윤달 특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셈이다.

영락공원은 이에 따라 근무시간을 연장키로 했다. 기존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

? 윤달 달을 기준으로 하는 태음력의 경우 태양력과 매년 11일의 오차가 생긴다. 그러므로 3년에 한 달, 또는 8년에 석 달의 윤달을 낳지 않으면 안 된다. 만일 음력에서 윤달을 전혀 낳지 않으면 17년 후에는 5, 6월에 눈이 내리고 동지·선달에 무더위가 닥치는 일이 생기게 된다. 한편, 윤달에는 사람을 감시하는 하늘과 땅의 신(神)도 잠시 멈추고 휴식을 취하는 탓에 굶은 일을 해도 액(厄)이나 해(害)가 없다는 속설이 전해지면서 이장을 하거나 수의를 만들 어두는 풍습이 전해져 오고 있다.

시가지 화장시설을 운영했지만, 윤달에는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운영시간을 늘

리기로 한 것이다.

공원관계자는 “윤달은 ‘썩은 달’ 또는 ‘공(凶) 달’이라고 하여 이장을 해도 큰 탈이 없는 시기로 알려져 있다”며 “이 때문에 윤달이면 조상묘 개장문의가 폭주해 눈코 뜰 새 없이 바쁘다”고 말했다.

하지만, 웨딩업계는 울상이다. “윤달에는 조상의 음덕을 받을 수 없다”는 속설로 인해 결혼을 꺼리는 탓이다. 광주 동구지역 결혼전문업체 ‘메디치 웨딩’ 관계자는 “웨딩업계의 봄철 성수기는 3월부터 6월 사이지만 올해는 윤달을 피하려는 예비부부들로 인해 6월 예약이 거의 없는 상태”라며 “윤달을 피해 9월부터 결혼식을 올리기 위해 상담을 하러 오는 사람들이 많다”고 말했다.

전은재기자 ej6621@kwangju.co.kr

광주 사립고 교사 김영란법 위반 고발 수학여행 답사 명분 가족과 리조트 숙박 뒤 요금 안내

광주지역 사립고 교사가 수학여행 사전답사 명분으로 가족들과 제주도 한 리조트에서 숙박한 뒤 요금을 내지 않아 김영란법 위반으로 고발당했다.

정부가 ‘세월호 침몰 참사 이후’ 학생 안전을 위해 현장 교사들에게 수학여행지를 미리 찾는 사전 점검을 의무화했다. 정부는 ‘세월호 침몰 참사 이후’ 학생 안전을 위해 현장 교사들에게 수학여행지를 미리 찾는 사전 점검을 의무화했다. 정부는 ‘세월호 침몰 참사 이후’ 학생 안전을 위해 현장 교사들에게 수학여행지를 미리 찾는 사전 점검을 의무화했다.

5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교육청은 광주 광산구 A사립고 교사 B씨에 대해 ‘부정정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른바 김영란법) 혐의를 적용,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청구했다.

B씨는 지난 4월 6일 수학여행을 앞두고 숙박업소로 잠정 결정된 제주도의 한 리조트를 사전답사 명목으로 가족과 이 용한 뒤 요금 15만원을 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광주교육청의 ‘2017 현장체험학습 운영매뉴얼’에는 ‘수학여행·수련활동·숙박형 현장체험학습은 현장답사를 한다’는 규정이 들어 있다. 또, 업체와의 계약 전 그리고 체험여행 실시 전 등 두 차례

에 걸쳐 현장답사를 하도록 명문화하고 있다.

이 같은 규정에 따라 사전 점검을 한 뒤 광주로 돌아온 B씨는 리조트의 안전 문제를 제기하며 여행사를 통해 해당 숙박업체와 예약을 취소하고 다른 숙박업체와 계약했다. 이후 리조트 측은 무료숙박 행태를 문제삼아 광주시교육청에 민원을 제기하면서 사실 확인 과정을 거쳐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청구했다는 게 교육청 설명이다.

교육청은 또 해당 학교법인에 B씨에 대한 경징계(감봉 3개월) 처분을 요구했다. 법원에 B씨의 혐의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면 숙박요금의 2~5배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내야 한다.

일각에서는 현장 답사 매뉴얼을 보완해 부정 비리가 개입될 여지를 차단하는 한편, 음성적 뒷거래를 막기 위한 정립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한편, 광주교육청은 지난 4~5월 초 41곳·중 62곳·고 21곳 등 125곳이 수학여행을 떠난 것으로 파악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일제 징용 참상 고발 수기 ‘사지를 넘어...’ 2판 발행 ‘한일공동행동’ 사무국장 클 수록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고 이상업씨의 징용참상 고발 수기 ‘사지를 넘어 귀향까지’ 2판이 발행됐다.

5일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에 따르면, 2판에는 야노 히데키 ‘조선인 강제노동 피해자 보상입법을 위한 한일공동행동’ 사무국장의 글이 새로 수록됐다.

야노 사무국장은 일본 정부가 군함도 등 징용시설을 2015년 유네스코 산업유산으로 올린 문제와 관련해 2판 발행에 큰 의미를 부여했다. 그는 일본 정부와 일부 학자가 ‘식민지배나 강제연행은 없었다’, ‘탄광 현장에서 일본인과 조선인 대우에 차이는 없었다’ 등을 주장하는 상황에서 수기가 역사 왜곡을 반박하는 실증자료라고 강조했다.

야노 사무국장은 “이상업 어른이 동원된 가미야마다 탄광이 군함도와 같은 미쓰비시광업 소속 탄광이었다”며 “수기를 통해 군함도 탄광 노동과 조선인 노동자 처우가 어땠는지 알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2판에는 저자 이씨가 ‘지옥 같은 곳’이라고 표현한 가미야마다 탄광을 일본인 학자 다케우치 야스히토가 조사한 내용도 일부 소개됐다. 다케우치는 가미야마다 탄광에서 사망한 조선인 노동자 가운데 이름이 확인된 사람이 66명이라고 밝혔다.

수기를 펴낸 이씨는 아시아태평양전쟁 막바지인 1943년 11월 열여섯 어린 나이에 가미야마다 탄광에 끌려갔다. 그는 지난달 26일 90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다.

김현영기자 young@kwangju.co.kr



“AI 막아라” 닭 판매업체 방역 군산 오골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AI(조류 인플루엔자) 양성반응이 나오면서 5일 전국적으로 가금류 유통금지 조치가 내려졌다. 이날 방역관계자들이 광주 북구 우산동 말바우시장의 닭 판매업체에서 방역작업을 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조현병 40대, 훔친 굴삭기로 건물·차량 파손

화순경찰, 구속영장 신청

정신질환인 조현병을 앓고 있는 40대 남성이 훔친 굴삭기로 건물과 차량을 잇따라 부수다가 경찰에 검거됐다.

화순경찰은 굴삭기로 건물과 차량 2대

를 파손한 혐의(특수손괴 등)로 양모(46)씨를 붙잡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5일 밝혔다. 양씨는 지난 4일 오전 1시20분께 화순군 이양면 한 도로에 열쇠가 꽂힌 채 주차된 굴삭기를 훔친 뒤 300m 가량 떨어진 슈퍼마켓 건물과 주차 차량 2대를 파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양씨는 경찰에 “슈퍼에 살인마 3명이 있다. 시끄럽게 소리를 내면 구해줄겠다”는 예수의 지시를 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양씨는 10년 전부터 정신질환인 조현병을 앓고 있는 환자로, 환청을 듣고 이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화순=조성수기자 css@kwangju.co.kr

여교사 담임 교실만 골라 턴 전문털이범

핸드백 노려 65차례 절도 순천경찰, 40대 구속

전국의 초등학교를 돌며 여교사가 담임인 교실만 골라 금품을 훔친 40대 전문털이범이 경찰에 붙잡혔다.

순천경찰은 순천·광주 등지의 초등학교를 돌며 여교사가 담임인 교실에 들어가 65차례에 걸쳐 3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절도)로 A(48)씨를 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28일부터 5월23일까지 광주·순천·대전·진주·사천 일대를 돌아다니면서 18개 초등학교에 진입해 65차례에 걸쳐 300만원 상당의 현금과 상품권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대상 초등학교 주변을 사

전에 답사해 CCTV 사각지대를 파악한 뒤 담을 넘어 학교에 들어갔으며, 복도에 비치된 담임교사 사진을 보고 범행장소를 골랐다.

A씨는 여교사들이 핸드백을 주로 교실에 두고 다니는 것에 주목하고, 급식 시간이나 체육시간 등 야외 활동 시간 때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피해자가 눈치를 채지 못하게 핸드백에 있는 현금이 나 상품권 중 일부만 훔쳤으며, 피해 사실을 알았더라도 학급 학생들의 소명으로 오인하게 해 경찰에 신고하지 못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순천경찰은 초등학교 교실 절도가 반복적으로 발생하자 수사전담팀을 꾸려 CCTV 영상 자료 등을 분석, 숙박업소에 숨어 있던 A씨를 검거했다.

순천=김은종기자 eikim@

‘호식이두마리치킨’ 회장, 여직원 성추행 혐의 피소

성다발

○최호식(63) 호식이두마리치킨 회장이 20대 회사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고소 당해 경찰이 수사.

○고소장에는 최 회장이 지난 3일 오후 6시에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있는 한 음식점에서 회사 여직원 A씨와 단 둘이 식사하던 중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했다는 내용이 담겨있고, 식사 후 최 회장이 인근 호텔로 A씨를 반강제로 끌고 가려 한 혐의도 추가.

○호텔에 들어선 A씨는 로비에서 다른 여성 3명에게 도움을 요청해 최 회장으로부터 빠져나왔는데, 경찰은 목격자 3명에게서 “최 회장이 A씨를 반강제로 호텔로 데려가려 했다”는 진술을 확보, 조만간 최 회장을 소환할 방침. 연협뉴스

http://www.greenmed.kr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제160511-중-30812호

자연그린한방병원

한의학 최희석·정행진·임정승 원장

암수술 이후 재발예방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보다 세밀한 진단과
보다 올바른 치료가 필요합니다.

암, 난임, 성장장애, 비만
피부질환, 근골격계질환

자연그린한방병원 대표전화 (062)952-3366
광주광역시 광산구 사암로 392(월곡2동 679-3)

우리집 태양광 발전소

우리집 전기는 만들어 쓴다 3,060W

가정용 태양광

시중가 600~650만원 월 4만7천원부터

Hanwha Q CELLS 한화큐셀
LG 전자모듈 25년 효율보증 12년 무상A/S
현대솔라

미세먼지 없는 세상에 살고 싶어요!

에너지부족 걱정마세요!
에어컨 빵빵하게 틀어도 전기요금 걱정마세요!

경시지붕형 주차장형 슬라브형

주택, 상가, 교회, 유치원, 모텔, 펜션(9kw까지 보조지원)

신재생 에너지 전문기업
해가온에너지 전국 A/S 1588-1543 상담 010-3645-1479
광주광역시 북구 중흥로 106(해가온빌딩 1층)